

〈6개월은 잘 하다가.....제가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잘 챙겨주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발이 멀쩡한데, 자기 건강을 자기가 챙겨야지....목사님이 무슨 책임이 있나요?〉

〈저의 책임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제가 어떻게 도와 드리기를 바라나요?〉

〈사실....이대로 부인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안으로 내려 오시어서 저와 치료 상담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병마와 싸우려면 공기와 산림이 우거진 연길 또는 장백현(백두산 줄기)에 조 선족이 많은 동네에 가서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리 좋은 약과 치료방법을 알려준다고 해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영숙씨가 보여준 의 심병과 저돌적인 행동, 누구에게 의탁하는 게으른 성격.....이런 것으로는 절대 암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암은 본인의 노력과 투지, 열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세상에는 암을 치료하는 한가지로 구성된 명약은 없습니다. 치료방법은 저의 병원에 방문을 하고 나서 서로 토론하면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이 더 이상 급성장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탕과 고기 단백질 종류, 우유, 미원....등 화학제품과 가공식품은 드시지 마세요. 특히 여성용 샴푸, 화장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몸에서 화학제품을 절대적으로 멀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부인과 의논하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전화가 들어 왔습니다

“권 선생님. 내일 서안 비행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비행기 탑승 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려도 기차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행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단 기차 안에서 라면과 빵을 드시면 안되니 과일을 많이 가지고 탑승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비행기 안되나요?”